

“행복한 銀”... 해남군청 박경두 고향에 첫 메달 선물

에페 결승, 한국 정진선에 패...사이클 이은지 은·우슈 서희주 동

인천아시안게임 둘째날인 21일 오후 8시 현재 광주·전남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고향에 첫 메달을 선물한 선수는 한국 펜싱 에페의 기동 박경두(30·해남군청)였다. 박경두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라이벌 정진선(30·화성시청)에게 9-15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경두는 1라운드에서 정진선에게 밀리자 선제 공격을 감행하며 추격전을 펼쳤지만, 리치가 짧은 핸드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진선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앞서 준결승에서는 베트남의 응우옌(24)과 맞붙어 시종일관 여유 있는 경기 운영 끝에 11-8로 승리했고, 8강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로만 페트로프(23)를 15-10으로 제압했다. 박경두는 23일 남자 에페 단체전에 출전해 첫 금메달과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한다.

사이클 이은지(25·나주시청)도 이날 단체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사이클 여자 단체 스프린트 결승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동료인 김원경(24·삼양사)·이혜진(22·부산지방공단스포팀)의 선전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경기에서 44초876을 기록한 한국은 중국(43초774)에 또 다시 '1초의 박'을 넘지 못했다. 21일에는 광주우슈협회 소속의 서희주(21)가 우슈 여자 투로에서 동메달을 선사했다.

서희주는 21일 강화 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투로에서 검술·창술 합계 19.24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희주는 검술에서 9.61점, 창술에서 9.63점을 받아 베트남의 두옹 투이비(19.41점), 마카오의 리이(19.39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 우슈에서 여자 투로 선수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딴 것은 서희주가 최초다. 서희주는 “부상을 이기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메달을 따는 꿈이었는데 현실이 되니 정말 감격스럽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기라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치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로 중국(금 10, 은 6, 동 7)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정진선이 펜싱에서 첫 금메달을 안겼고, 이라진 은여자 사브르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격에서 무서운 고교 신예 김청용이 대회 첫 2관왕에 등극했고, 이하성은 우슈에서 금메달을 땀다. 단체전에서는 마장마술이 대회 5연패를, 사이클 남자 단체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바이벤트로 기대를 모았던 박태환은 수영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결혼 예물은 금메달”

펜싱 에페 해남군청 박경두



“오늘은 은메달이지만, 글피 땀 꼭 금메달을 선물할래요.” 한국 펜싱 남자 에페의 기동 박경두(30·해남군청)가 여친에게 ‘결혼예물’로 은메달을 선물했다. 12년째 사귀어온 여친이다. 해남 출신의 박경두는 인천 아시안게임 첫날인 지난 20일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광주·전남 소속 선수단의 첫 메달이다.

박경두는 “개인적으로 금메달 욕심을 냈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데 만족한다”며 “23일 에페 단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광주우 대회에 이어 2연패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두는 해남에서 나고 자랐다. 해남 산이중 2학년인 14살때 펜싱에 입문했다. 학교 체육관에서 펜싱감을 장난스레 휘두르는 모습을 우연히 본 펜싱코치가 운동을 권유하면서다. 해남공고와 한국체대를 나와 2009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에페 단체전 금메달, 2011 이탈리아 세계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 동메달을 잇달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2 런던올림픽 첫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슬럼프에 빠졌다가 부단한 노력 끝에 탈출했다. 펜싱계에서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 몸장’, ‘연습벌레’로 통한다. 176cm, 76kg인 그는 펜싱 선수로서는 리치가 짧은 핸드캡이 있지만 강도높은 훈련과 신기술 개발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삼촌에게 바치는 ‘金’

김군섭, 마장마술 광저우 이어 2연속 금
삼촌은 도하대회 낙마사고사 故 김형철



2006년 도하대회에서 불의의 낙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삼촌에게 바치는 김군섭의 두 번째 금메달이었다. 한국은 지난 20일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금빛 연기’를 펼치며 1998년 방콕 대회부터 5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군섭(33)은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낮은 68.816%를 받아 합산 점수에서는 제외됐지만 동료 김동선(25), 황영식(24), 정유연(18)의 활약 속에 광저우대회에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마이자 삼촌이었던 고(故) 김형철에게 바치는 두 번째 금메달이다. 김군섭의 조부는 1964년 도쿄올림픽 승마 대표였던 김철규. 삼촌은 1986년 서울 대회에서 동메달, 2002년 부산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김형철이다. 광주 승마계의 역사인 조부와 삼촌이다. ‘승마가족’답게 자연스럽게 말에 오르는 김군섭은 삼촌의 호된 가르침 속에 국가대표까지 성장했다. 2002년 부산대회에서는 삼촌과 종합마술에 출전해 은메달을 합작했다. 하지만 2006년 도하 대회 종합마술에 출전했던 삼촌은 경기 중 낙마를 하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사흘 뒤 치러진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고 서럽게 흐느끼던 이가 바로 김군섭이었다. 승마를 그만 둘 생각까지 했던 김군섭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했던 삼촌을 대신해 다시 말에 올랐고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 김 시동 21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 복식 8강전에서 화순 출신의 이용대(26·삼성전기)와 유연성(28·국군체육부대) 조가 일본의 엔도·하야가와 조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아시아의 꿈’을 수놓은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화 불 밝혔다

45개국 1만4천명 열전 돌입

‘45억 아시아의 꿈’을 밝힐 불꽃이 인천에서 화려하게 타올랐다.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19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모든 회원국에서 1만40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개 전 종목에 선수 831명, 임원 237명 등 총 1068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금메달 90개 이상, 5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세웠다. 중국은 9회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하고, 북한은 역도·체조·여자축구 등에서 선전을 기대하며 ‘톱10’ 진입을 노리고 있다.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 등을 비롯해 6만여명의 관중이 참석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